

「세무와회계저널」 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노창* · 윤성만**

〈요 약〉

본 논문은 국내 세무학 및 회계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 중 하나인 「세무와회계저널」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내용(주제)분석, 저자분석, 심사기간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에서 전체 논문 중 재무회계 분야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무회계 21.1% 및 조세법 18.5%의 순이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실증연구가 가장 많이 이용한 연구방법이며, 이어 서술적 연구 및 설문연구의 순이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조세법 분야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세정책 분야는 세제지원과 조세형평의 연구가 많았다. 세무회계 분야는 조세회피와 조세순응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재무회계 분야는 이익조정과 가치관련성의 연구가 많았다.

저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인 저자 비율은 2인, 1인 및 3인 이상 저자 비율 순으로 나타나 연구에 있어서 공동 협업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저자 직위를 살펴보면, 제1저자보다 교신저자의 전임 교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사문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비 지원 논문, 감사의 글 및 학술대회발표논문의 순을 보였다. 저자 소속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및 관리회계 분야는 국내논문 인용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재무회계와 회계감사 분야는 외국논문 인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논문 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학회지를 살펴보면,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학연구」, 재무회계 및 회계감사는 「회계학연구」, 조세정책 분야는 「세무와회계저널」 그리고 관리회계 분야는 「회계저널」의 인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저널인 「세무와회계저널」은 세무학 및 회계학 연구의 주요 학술지로서 역할을 20년간 충실히 이행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 다양한 연구방법 및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변화를 앞서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세무와회계저널, 내용분석, 저자분석, 인용분석

*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부교수, ilulis@jj.ac.kr, 주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ysm6123@seoultech.ac.kr, 교신저자

I. 서 론

한국세무학회는 1998년 창립되었으며 1990년에 세무학연구를 발행하였다. 세무학연구는 1년에 4회 발간하고 있었으나 논문 발표의 기회가 적고 세무학과 더불어 회계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논문발표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00년 5월 세무와 회계저널을 창간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는 연 6회 발행을 시작하여 많은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와 회계저널』은 2004년 7월에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었고, 이후 2007년 1월에 등재학술지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하는 『세무와회계저널』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8년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여 세무학 분야와 회계학 분야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세무학과 회계학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인용분석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회계 및 세무전문가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세무와회계저널』에 대한 개관을 통해 새로운 연구방향과 연구의 기회를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 분야는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및 회계감사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분야별로 많이 연구된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 게재 논문들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실증연구, 자본시장연구, 서술적연구, 분석적연구, 실험(설문)연구 및 사례연구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분야별로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수, 저자 직위, 사사문구 표기 및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여 협업(co-work)의 정도와 지역에 따른 연구 인원 및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의 접수일부터 게재확정일까지의 심사기간 및 심사수정횟수를 분석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참고문헌(reference)을 파악하여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이 주로 인용하는 방법 및 학회지를 파악한다. 참고문헌은 크게 외국논문과 국내논문, 학위논문 및 학술발표대회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논문은 『세무와회계저널』에 주로 인용되는 16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내용(주제)과 관련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저자측면에서 게재 논문을 연구 분야 및 지역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게재 논문의 심사기간 및 심사수정횟수를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참고문헌 인용과 관련해서 국내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II. 내용분석

1.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론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분야별 연구주제를 <표 1>에 구분하였다. 세법학은 이준규 외 1인(2001)을 참조하여 조세법,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로 분류하였으며, 회계학은 권선국 외 1인(1997) 및 최원석 외 2인(2015)을 참조하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1>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분야 분류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조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법해석을 기본으로 한 논문을 조세법으로 정의
조세정책	세제지원, 조세형평(세부담), 조세감면, 세원개발, 세제개혁, 외국제도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조세정책으로 정의
세무회계	조세회피, 조세순응, 세무대리인, 세무계획, 이연법인세, 비조세비용, 세무조사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세무회계로 정의
재무회계	이익조정, 이익예측, 가치관련성, 가치평가, 회계정보의 유용성, 공시제도, 기업지배 구조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재무회계로 정의
관리회계	원가행태, ABC, 원가구조, 원가정보, 성과보상, 관리회계시스템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관리회계로 정의
회계감사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보수, 감사품질, 비감사서비스, 감사의견 및 감리제도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회계감사로 정의
기타	회계시스템 설계 및 개선,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 비영리조직회계 및 정부회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기타로 분류

조세법은 법해석을 다룬 논문을 기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여 세목별로 구분하였다. 조세정책은 조세형평, 세제지원 및 외국세법 등의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세무회계는 조세회피(Tax Avoidance),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 : 이하 ETR) 및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ook-Tax Difference : 이하 BTD)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재무회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회계정보의 유용성, 가치관련성, 가치평가 및 이익예측 등을 주요 연구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정의하였다. 관리회계는 원가행태, 원가구조, ABC(Activity Based Costing) 등의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구분하였고, 회계감사는 감사보수, 감사인의 독립성, 비감사서비스 등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기타에는 회계정보시스템, 회계제도, 비영

리회계 등을 포함하였다(홍기용·박영규, 2003). 이러한 연구분야의 분포는 『세무와회계저널』이 회계학, 경제학 및 조세법의 세부 연구주제를 포괄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의 학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을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및 기타의 7개 분야로 크게 분류하였다. 전체기간 중 재무회계 233건(32.5%)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세무회계 151건(21.1%) 및 조세법 133건(18.5%)의 순서이다. 다음으로 조세정책 85건(11.9%), 회계감사 66건(9.1%) 및 기타 37건(4.9%)의 순이다.

분석기간은 창간 이후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전체논문에서 차지하는 재무회계의 비중이 제1기 25.4%, 제2기 26.3%이었으나 제3기 33.8%, 제4기 3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세무회계는 전체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기 18.3%에서 제2기 28.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제3기 16.5%로 대폭 감소하였고 제4기 21.7%로 소폭 증가하였다. 조세법은 전체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기부터 제3기까지 18%~25%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제4기에 13.8%로 소폭 감소하였다. 조세정책은 전체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기에는 4.2%로 낮았으나 이후 제2기부터 제4기까지 11%~13%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제1기에는 4.2%로 낮았으나 점차 증가하여 제3기에는 12.9%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세법학은 세무회계, 조세법, 조세정책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계학은 재무회계, 회계감사, 관리회계 순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분야 분석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71	171	272	205	719(100%)
조세법	18	31	56	28	133(18.5%)
조세정책	3	22	32	28	85(11.9%)
세무회계	13	49	45	44	151(21.1%)
재무회계	18	45	92	78	233(32.5%)
관리회계	2	6	2	4	14(2.0%)
회계감사	3	12	35	16	66(9.1%)
기타	14	6	10	7	37(4.9%)

<표 3>은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준규 외 1인(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방법론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술적 연구는 수리적 모형에 기반을 둔 분석적 작업이나 표본자료에 기반을 둔 경험적 실증과정 없이 문헌을 통

한 연구 및 연역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실증연구는 표본 자료에 기초하여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과 같은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이다. 분석적 연구는 모델링(modelling)이 대표적이며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방법이다. 설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응답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며, 실험연구는 가상적인 환경의 실험공간에서 피험자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비교연구는 국가 간 제도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

『세무와회계저널』 게재 논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구방법론은 실증연구이다. 실증연구는 게재논문 총 719건 중 405건 56.4%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다음으로 서술적 연구 203건(28.2%), 설문(실험)연구 42건(5.9%) 및 사례연구 28건(4.9%)의 순이다. 5년 주기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1기는 실증연구가 28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술적 연구가 25건(35.2%)이다. 제2기도 실증연구가 84건(49.1%)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연구방법이며, 다음으로 서술적 연구 52건(30.4%)의 순이다. 제3기는 제2기와 유사하게 실증연구가 152건(55.8%), 서술적 연구 82건(30.1%)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4년을 나타내는 제4기에는 실증연구가 141건(68.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서술적 연구 44건(21.2%)으로 하락하였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실증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증연구 및 서술적 연구가 주요한 연구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방법론

구분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71	171	272	205	719(100%)
실증연구 ¹⁾	28	84	152	141	405(56.4%)
서술적 연구	25	52	82	44	203(28.2%)
분석적 연구	2	3	5	0	10(1.4%)
설문(실험)연구	6	20	10	6	42(5.9%)
비교연구	7	7	4	5	23(3.2%)
사례연구	3	5	19	9	28(4.9%)

1) 실증연구 중 재무변수의 자본시장 반응을 검증하는 연구 비중을 살펴보면, 제1기(12건), 제2기(13건), 제3기(40건) 및 제4기(28건)으로 나타난다. 전체 논문 719건 중 93건으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연구주제 분석

조세법 분야의 세부적인 연구주제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조세법 분야를 조문에 따른 이슈로 구분하기에는 항목이 많아 세목별로 구분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모두 적용되는 주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항목으로 나누었다. 조세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연구 분야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법인세법 32건(24.1%)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지방세법 15건(11.3%), 소득세법 14건(10.5%)의 순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법인세법 4건(22.2%), 지방세법 등 3건(16.7%)으로 두 분야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기도 제1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10건(32.3%)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세법과 조세행정 4건(12.9%)이 다음 순이다. 제3기에는 법인세법 13건(23.2%)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주제였으며, 이전 기간과는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 7건(12.5%)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7건(12.5%)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제4기에는 소득세법 6건(21.4%)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법인세법 5건(17.9%)의 순이다. 추가적으로 조세법 논문에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구분된 장으로 제시한 논문은 전체 266건 중 185건으로 6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조세법 분야의 세부적인 연구주제

구 분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18	31	56	28	133(100%)
국제기본법	1	2	4	4	11(8.3%)
법인세법	4	10	13	5	32(24.1%)
소득세법	1	4	3	6	14(10.5%)
법인세법/소득세법	2	2	2	—	6(4.5%)
부가가치세법	2	2	5	4	13(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1	7	—	9(6.8%)
지방세법	3	2	6	4	15(11.3%)
국제조세	2	1	7	—	10(7.5%)
조세역사	—	1	1	1	3(2.3%)
조세행정	1	4	2	1	8(6.0%)
기타	1	2	6	3	12(8.9%)

<표 5>는 조세정책 분야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조세정책에서 많이 다루는 연구주제는 세제지원과 조세형평(조세부담 비교)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세제지원은 19건(22.4%)으로 가장 많은 연구 주제이며 제2기부터 제4기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조세형평 19건(22.4%), 기타 11건(12.8%) 및 세원개발 10건(11.8%)의 순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총 3건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기에는 세제지원 연구가 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세형평 5건(22.7%)의 순이다. 제3기도 제2기와 마찬가지로 세제지원과 조세형평이 1, 2위이며, 다음으로 세원개발과 외국제도의 순이다. 제4기에는 세제지원이 8건(28.6%)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주제였으며, 다음으로 조세형평 7건(25.0%) 및 세원개발(17.9%)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조세정책 논문에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구분된 장으로 제시한 논문은 전체 98건 중 38건으로 3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조세정책 분야의 연구 주제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3	22	32	28	85(100%)
세제지원	—	6	8	8	22(25.9%)
조세감면	—	2	2	2	6(7.1%)
조세형평	—	5	7	7	19(22.4%)
세원개발	—	—	5	5	10(11.8%)
외국제도	1	1	4	3	9(10.6%)
환경세	1	1	—	—	2(2.3%)
세제개혁	—	3	2	1	6(7.1%)
기타	1	4	4	2	11(12.8%)

<표 6>은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세무회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구주제는 조세회피와 조세순응 및 회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조세회피는 51건(33.8%)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제4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조세순응 16건(10.5%), 회계기준 16건(10.5%) 및 세무대리인 15건(9.9%)의 순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세무대리인 관련연구가 2건(15.4%), 이연법인세 2건(15.4%) 및 회계기준 2건(15.4%)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기에는 조세회피 연구가 10건(20.4%)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세무대리인 연구도 9건(18.4%)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였다. 제3기에는 제2기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연구가 14건(11.8%)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였으며, 다음으로

회계기준 9건(20.0%)의 순이다. 제4기에는 조세회피가 27건(61.4%)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주제였으며 이전 기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최기호, 2018). 추가적으로 세무회계 논문에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구분된 장으로 제시한 논문은 전체 343건 중 41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 주제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13	49	45	44	151(100%)
조세회피	—	10	14	27	51(33.8%)
조세순응	—	7	5	4	16(10.6%)
세무대리인	2	9	2	2	15(9.9%)
세무계획	—	1	4	3	8(5.3%)
이연법인세	2	3	2	1	8(5.3%)
비조세비용	—	2	1	1	4(2.6%)
비상장주식평가	1	2	—	—	3(2.0%)
회계기준	2	4	9	1	16(10.6%)
세무조사	—	2	1	—	3(2.0%)
연결납세	1	—	2	—	3(2.0%)
세무회계교육	1	2	1	—	4(2.6%)
기타	4	7	4	5	20(13.2%)

참고) 조세회피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BTD, D&D(2006), (Cash)ETR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로 정의함

재무회계 분야의 세부적인 연구주제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재무회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는 이익조정과 가치관련성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익조정은 51건(21.9%)으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가치관련성 47건(20.2%), 가치평가 43건(18.5%) 및 이익예측 25건(10.7%)의 순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가치관련성 관련연구가 6건(33.3%)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연구 주제였다. 제2기에는 가치평가 연구가 11건(24.4%)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이익조정 연구도 10건(22.2%)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였다. 제3기에는 이익조정 연구가 22건(23.9%)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였으며, 다음으로 가치관련성 18건(19.6%)의 순이다. 제4기에는 가치평가가 20건(25.6%)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주제였으며, 다음으로 가치관련성 17건(21.8%)의 순이다. 이익정, 가치관련성 및 가치평가가 재무회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재무회계 분야의 연구 주제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18	45	92	78	233(100%)
가치관련성	6	6	18	17	47(20.2%)
이익조정	3	10	22	16	51(21.9%)
이익예측	3	1	12	9	25(10.7%)
기업지배구조	2	3	5	2	12(5.2%)
가치평가	2	11	10	20	43(18.5%)
회계정보유용성	2	3	6	3	14(6.0%)
공시제도	—	6	6	2	14(6.0%)
회계정보신뢰성	—	4	4	1	9(3.8%)
기타	—	1	9	8	18(7.7%)

〈표 8〉은 회계감사 분야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회계감사에서 많이 다루는 연구주제는 감사품질과 감사보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감사품질은 21건(31.8%)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며 제3기부터 제4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감사보수 16건(24.2%) 및 감사인 교체 12건(18.2%)의 순이다. 특히 다른 기간에 비해 제3기에 회계감사에 투고된 논문이 양적으로도 많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하였다.

〈표 8〉 회계감사 분야의 연구 주제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 계	3	12	35	16	66(100%)
감사인 교체	2	3	5	2	12(18.2%)
감리제도	—	1	3	2	6(9.1%)
감사보수	—	4	11	1	16(24.2%)
감사품질	—	3	10	9	21(31.8%)
감사시간	—	—	1	1	2(3.0%)
비감사서비스	—	1	1	—	2(3.0%)
감사인 독립성	1	—	3	—	4(6.0%)
감사인 판단	—	—	2	1	3(4.7%)

<표 9>는 관리회계 분야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관리회계에서 많이 다루는 연구주제는 ABC와 원가구조 및 원가행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ABC은 4건(28.6%)으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원가구조 3건(21.4%), 원가행태 3건(21.4%)의 순이다. 제1기간에는 ABC 관련 연구만 이루어졌으며, 제2기에는 관리회계의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제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표 9〉 관리회계 분야의 연구 주제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2	6	2	4	14(100%)
ABC	2	1	1	—	4(28.6%)
BSC	—	1	—	—	1(7.1%)
원가구조	—	1	—	2	3(21.4%)
원가행태	—	—	1	2	3(21.4%)
성과보상	—	1	—	—	1(7.1%)
성과평가	—	2	—	—	2(14.4%)

Ⅲ. 저자분석

1.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연도별 및 연구 분야별 공저자의 수, 저자의 지위, 저자 소속 기관의 지역별 분포 그리고 저자의 지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저자분석 방법은 Williams(1985)와 최원석 외 2인(2015)의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저자 분석을 통해 연구 분야 및 시기에 따라 협업(co-work)의 추세를 파악하고 논문 게재에 있어 협업(co-work)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의 지위와 사사문구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저자 소속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여 지역별 연구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결과

<표 10>은 저자 수의 분포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2018년까지 총 719건의 논문 중 1인 저자는 209건(29.1%), 2인 저자는 349건(48.4%), 3인 저자는 144건(20.1%), 4인 이상 저

자는 17건(2.4%)으로 나타났다. 1인 단독 저자와 2인 이상의 공저자 비율이 약 3 : 7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연도별 저자 수 분포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4인 이상	전체
합계	209(29.1%)	349(48.4%)	144(20.1%)	17(2.4%)	719(100%)
제1기	22	39	10	0	71
2000	9	11	3	—	23
2001	3	6	—	—	9
2002	3	6	1	—	10
2003	3	6	2	1	12
2004	4	10	1	2	17
제2기	59	69	39	4	171
2005	10	8	5	—	23
2006	13	17	9	—	39
2007	10	10	5	—	25
2008	12	15	8	1	36
2009	14	19	12	3	48
제3기	75	136	53	8	272
2010	14	21	11	4	50
2011	24	32	10	—	66
2012	13	30	11	2	56
2013	13	22	9	—	44
2014	11	31	12	2	56
제4기	53	105	45	2	205
2015	17	22	10	—	49
2016	11	30	10	—	51
2017	11	27	14	—	52
2018	14	26	11	2	53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1기는 1인 저자가 22건(31.0%), 2인 저자가 39건(54.9%), 3인 이상 저자가 10건(4.1%)으로 나타났다. 제2기는 1인 저자가 59건(34.5%), 2인 저자가 69건(40.4%), 3인 이

상 저자가 43건(25.1%)으로 나타났다. 제3기는 1인 저자가 75건(27.6%), 2인 저자가 136건(50.0%), 3인 이상 저자가 61건(23.4%)이다. 제4기는 1인 저자가 53건(25.9%), 2인 저자가 105건(51.2%), 3인 이상 저자가 47건(22.9%)이다. 1,2기간 보다 3,4기간에 1인 단독 연구가 소폭 감소하고 공동연구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1기간보다 이후 기간의 3인 이상의 저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세무학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의 증가와 관련분야 신규 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로 파악된다. 더불어 연구자간에 공동 연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집필활동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며,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연구자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파악된다.

<표 11>은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 분야별 저자 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법 분야는 다른 분야 보다 1인 저자가 53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회계감사 분야는 1인 저자가 14건(2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는 1인 저자의 비율이 27%—28%로 대동소이하다. 조세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공저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며, 2인 공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연구 분야별 저자 수 분포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합계
총합계	209	349	144	17	719
조세법	53	68	12	—	133
조세정책	24	41	19	1	85
세무회계	42	71	34	4	151
재무회계	63	107	56	7	233
관리회계	4	5	3	2	14
회계감사	14	36	16	—	66
기타	9	21	4	3	37

<표 12>는 『세무와회계저널』 게재 논문의 저자 직위를 분석한 내용이다. 제1저자의 경우 교수가 31.7%, 부교수가 17.3%, 조교수가 15.5% 및 전임강사가 4.9%로 전임교원의 비율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교신저자는 교수가 37.1%, 부교수가 17.9%, 조교수가 22.0%, 전임강사가 3.1%로 전임교원의 비율이 제1저자 보다 높은 80.1%를 보였다. 반면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집필한 경우가 12.1%,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가 10.4%로 박사과정 학생들도 『세무와회계저널』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학 및 회계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12〉 저자 직위

구분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인수	비율	인수	비율
합계	719	100%	413	100%
교수	228	31.7%	153	37.1%
부교수	125	17.3%	74	17.9%
조교수	111	15.5%	91	22.0%
전임강사	35	4.9%	13	3.1%
박사	44	6.1%	12	2.9%
박사과정	87	12.1%	44	10.4%
연구원	22	3.1%	14	3.4%
비전임교수	25	3.5%	7	1.6%
기타	42	5.8%	7	1.6%

주 1) 교신저자의 수는 1인 저자 및 다수저자 중 교신저자로 표시되지 않은 논문 304편을 제외한 수치임

〈표 13〉은 『세무와회계저널』 논문에 표기된 사사문구를 분석한 내용이다. 총논문 719건 중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은 450(62.6%)건이다. 연구비지원을 받은 논문이 244건(54.2%), 논문작성 및 심사과정 중 받은 도움과 관련하여 감사의 글이 98건(21.8%), 연구보고서가 16건(3.6%),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26건(5.8%) 및 학위논문이 66건(14.6%)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사문구 분석

구분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전체
합계	15	106	194	135	450(100%)
연구비지원	10	55	103	76	244(54.2%)
감사의 글	3	30	43	22	98(21.8%)
연구보고서	—	5	5	6	16(3.6%)
학술대회발표	—	5	15	6	26(5.8%)
학위논문	2	11	28	25	66(14.6%)

전체 논문 중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비중은 제1기에는 14%(10건/71건)에 불과하였으나 제2기 32.2%(55건/171건), 제3기 37.9%(103건/272건) 및 제4기 37.1%(76건/20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제1기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제2기 5건 및 제3기 1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세무와회계저널』의 게재로 이어지는 비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하는 비율이 제1기 2.8%(2건/71건), 제2기 6.4%(11건/171건)로 낮았으나, 제3기 10.3%(28건/272건), 제4기 12.2%(25건/205건)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4>는 『세무와회계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가 속한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논문을 집필하는 절대적인 인원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절대치로 비교하면 서울 880건(62.6%), 경기 191건(18.4%), 충북 64건(4.6%) 및 대구 37건(2.6%)의 순이다. 특히 서울은 1기(46.2%)에 비해 2기(60.5%), 3기(68.5%), 4기(61.8%)에 60%를 넘어서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4〉 저자 소속기관의 지역별 분포

구분	제1기 (2000-2004)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합계
합계	130	329	540	406	1,405
서울	60(46.2%)	199(60.5%)	370(68.5%)	251(61.8%)	880(62.6%)
부산	3	5	5	10	23(1.6%)
인천	5	7	9	5	26(1.9%)
대구	5	11	9	12	37(2.6%)
대전	1	11	5	10	27(1.8%)
광주	—	2	10	11	23(1.6%)
울산	2	2	1	—	5(0.4%)
세종	—	—	—	4	4(0.3%)
경기	35	48	66	42	191(13.6%)
강원	2	7	8	14	31(2.2%)
경남	4	6	—	4	14(1.0%)
경북	5	2	18	11	36(2.6%)
충북	3	9	28	24	64(4.6%)
충남	2	8	4	—	14(1.0%)
전북	1	2	2	—	5(0.4%)
전남	1	1	4	6	12(0.8%)
제주	—	3	—	—	3(0.2%)
외국	1	6	1	4	12(0.8%)

IV. 심사기간

1. 분석방법

심사기간 분석은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이 [접수일-게재확정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얼마인지 분석한다. 이는 연구 분야별로 심사의 신속성 및 심사위원단 구성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사기간 외에 심사수정 횟수를 분석하여 논문의 접수일부터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몇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한다. 분석방법은 권선국의 1인(1997)과 최원석 외 2인(2015)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2. 심사기간

분석에 앞서 2000년부터 2003년 11월까지의 접수일과 게재확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1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5>를 살펴보면, 제2기(2005년-2009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심사기간은 113일, 제3기(2010년-2014년)는 108일 그리고 제4기(2015년-2018년)는 121일이다. 제3기 심사기간이 가장 짧고 제4기 심사기간이 가장 길다.

<표 15> 『세무와회계저널』의 심사기간(2005년-2018년)

	제2기 (2005-2009)	제3기 (2010-2014)	제4기 (2015~2018)	평균 (2000-2018년)
평균	112일	108일	121일	113일
조세법	101일	96일	118일	104일
조세정책	109일	95일	113일	104일
세무회계	115일	111일	123일	116일
재무회계	116일	102일	122일	112일
관리회계	110일	60일	75일	78일
회계감사	122일	155일	146일	143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관리회계가 78일로 가장 짧은 논문 심사기간이 소요되었고, 회계감사가 143일로 가장 긴 논문 심사기간이 소요되었다. 기간별로 분석해보면, 제2기에 조세법이 101일로 가장 짧았으며, 회계감사가 122일로 가장 긴 논문 심사기간이 소요되었다. 제3기에 관리회계가 60일로 가장 짧은 논문 심사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회계감사가 155일로 가장 길었다. 제4기도 제3기와 마찬가지로 관리회계가 가장 짧고 회계감사가 가장 길다. 제3기에 비해 제4기에 심사기간

이 길어진 이유는 심사위원단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위원단의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

<표 16>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와회계저널』의 심사 수정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6월 이전에는 수정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 없이 즉시 게재된 논문이 75건(16.7%), 1차 수정 후 게재된 논문이 304건(67.6%), 2차 이상 수정 후 게재된 논문이 70건(15.7%)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무회계가 즉시 게재된 논문비율이 34건(20.1%)으로 가장 높고 조세법이 8건(9.9%)으로 가장 낮다. 1차 수정 후 게재된 논문 비율은 세무회계 분야가 63건(72.4%)으로 가장 높으며, 2차 수정 후 게재된 논문 비율은 조세정책 분야가 13건(22.8%)으로 가장 높다.

〈표 16〉 『세무와회계저널』의 심사 수정횟수 : 2010-2018년

구 분	즉시게재	1차 수정게재	2차 이상 수정게재	전체
전 체	75 (16.7%)	303 (67.6%)	70 (15.7%)	448 (100%)
조세법	8 (9.9%)	60 (74.0%)	13 (16.1%)	81 (100%)
조세정책	8 (14.0%)	36 (63.2%)	13 (22.8%)	57 (100%)
세무회계	12 (13.8%)	63 (72.4%)	12 (13.8%)	87 (100%)
재무회계	34 (20.1%)	113 (66.9%)	22 (13.0%)	169 (100%)
관리회계	1 (14.3%)	5 (71.4%)	1 (14.3%)	7 (100%)
회계감사	12 (25.0%)	27 (56.3%)	9 (18.7%)	48 (100%)

V. 인용분석

1.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reference)을 확인하여, 이를 외국저서, 외국논문, 국내저서, 국내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으로 나누어 인용횟수(비율)을 분석

하였다. 예를 들어,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에 다른 학회지에서 인용된 3편의 논문이 있다면 인용횟수는 3회, 인용비율은 100%로 계산하였다. 또한 참고문헌 상 국내논문의 저널을 확인하여 인용비율이 높은 16개 학회지를 선정하고 학회지별 인용횟수(비율)을 분석하였다. 6개의 연구 분야별로 자주 인용하는 학술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가 논문 작성시 자주 인용하는 학술지 및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Brown and Gardner(1985)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를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2. 인용분석 결과

<표 17>은 『세무와회계저널』의 6개 연구 분야별로 인용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법 분야는 전체 2,584건 중 국내논문이 679건(26.3%)으로 가장 많은 인용 횟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내저서가 488건(18.9%) 그리고 외국저서 452건(17.5%)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조세정책 분야는 전체 1,547건 중 국내논문이 422건(27.3%)으로 인용 횟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338건(21.8%)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전체 4,108건 중 외국논문이 2,035건(49.5%)으로 인용 횟수가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국내논문 1,445건(35.2%)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재무회계 분야는 전체 7,623건 중 외국논문이 4,740건(62.2%)으로 가장 많은 인용 횟수를 나타내며, 국내논문이 2,326건(30.5%)의 순이다.

〈표 17〉 연구 분야별 인용횟수

구 분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합계
합계	2,584	1,547	4,108	7,623	464	2,555	19,756
외국논문	287	320	2,035	4,740	271	1,544	9,489
외국저서	452	193	104	124	15	22	1,009
국내논문	679	422	1,445	2,326	96	922	6,123
국내저서	488	93	113	68	19	12	853
학위논문	105	29	141	71	25	6	427
연구보고서	339	338	144	99	23	6	1,012
학술발표자료	49	46	60	109	6	18	309
보도자료	73	38	30	42	—	15	208
기타	112	68	36	44	9	10	326

관리회계 분야는 전체 464건 중 외국논문이 271건(58.4%)으로 인용 횟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내논문이 96건(35.4%)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회계감사 분야는 전체 2,555건 중 외

국논문이 1,544건(60.4%)으로 인용 횟수가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국내논문이 922건(36.1%)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표 18>은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 분야별 인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법 분야는 전체 133건 중 국내논문 116건(87.2%)으로 가장 높은 인용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내저서 100건(75.2%)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표 18〉 연구 분야별 인용 비율²⁾

구 분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합계
전체논문수	133	85	151	233	14	66	719
외국논문	37 (27.8%)	50 (58.8%)	123 (81.5%)	229 (98.3%)	13 (92.9%)	66 (100%)	540 (75.1%)
외국저서	69 (51.9%)	51 (60.0%)	38 (25.2%)	56 (24.0%)	4 (28.6%)	8 (12.1%)	246 (34.2%)
국내논문	116 (87.2%)	77 (90.6%)	143 (94.7%)	222 (95.3%)	14 (100%)	64 (97.0%)	664 (92.4%)
국내저서	100 (75.2%)	33 (38.8%)	46 (30.5%)	45 (19.3%)	5 (35.7%)	6 (9.1%)	251 (34.9%)
학위논문	46 (34.6%)	19 (22.4%)	53 (35.1%)	37 (15.9%)	8 (57.1%)	5 (7.6%)	183 (25.5%)
연구보고서	96 (72.2%)	67 (78.8%)	60 (39.7%)	52 (22.3%)	5 (35.7%)	5 (7.6%)	311 (43.3%)
학술발표	25 (18.8%)	30 (35.3%)	28 (18.5%)	72 (30.9%)	4 (28.6%)	16 (24.2%)	192 (26.7%)
보도자료	28 (21.1%)	20 (23.5%)	18 (11.9%)	18 (7.7%)	— (0%)	6 (9.1%)	94 (13.1%)
기타	51 (38.3%)	31 (36.5%)	19 (12.6%)	23 (9.9%)	5 (35.7%)	8 (12.1%)	152 (21.1%)

조세정책 분야는 전체 85건의 논문 중 국내논문 77건(90.6%)으로 인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60건(70.6%)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총 151건 중 국내

2) 연구 분야별 인용 비율은 하나의 논문에 참고문헌 종류(구분)에 따른 인용 여부를 표시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1개의 논문에 외국논문이 3편, 외국저서가 0편, 국내논문이 10편이 인용되었다면, 인용비율은 100%, 0% 및 100%로 표시된다. 따라서 조세법에서 외국논문 37건의 의미는 총 133건의 논문 중 외국논문을 한 건 이상 인용한 논문이 37건이며, 비율은 27.8%(37건/133건)이다.

논문이 143건(94.7%)으로 제일 높은 인용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외국논문 123건(81.4%)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재무회계 분야는 전체 233건 중 외국논문 229건(98.3%)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내논문 222건(95.3%)의 순이다. 관리회계 분야는 전체 14건 논문 중 국내논문 비율이 14건(100%)이며, 다음으로 외국논문 13건(92.9%)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분야는 외국논문 66건(100%)으로 제일 높은 인용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국내논문 64건(97.0%)의 순이다.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및 관리회계는 국내논문을 제일 높은 비율로 인용하고 있으며, 재무회계와 회계감사는 외국논문을 제일 높은 비율로 인용하고 있다.

<표 19>는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 분야에 따른 국내논문 인용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참고하여 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16개의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기타는 국내학회지 중 『세무와회계저널』에 자주 인용되는 16개 학회지를 제외한 학회지를 의미한다.

〈표 19〉 연구 분야별 국내논문 인용 횟수

구 분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합계	679	424	1,444	2,325	96	922
세무학연구	134	62	323	58	3	9
세무와회계저널	86	58	166	283	4	85
회계학연구	13	5	313	653	20	361
회계저널	18	3	94	230	12	135
경영학연구	1	7	55	152	13	49
회계세무와감사연구	4	4	55	129	2	158
재무와회계정보	—	3	4	12	—	4
대한경영학회지	2	7	25	58	4	11
경영연구	—	—	9	28	4	3
회계연구	2	7	12	64	1	10
회계정보연구	1	5	51	130	3	34
조세법연구	61	15	15	3	—	—
조세학술논집	24	18	4	5	—	1
조세연구	32	13	13	—	—	—
세무회계연구	5	2	19	13	—	3
증권학회지	3	2	14	108	1	7
기타학회지	293	213	272	399	29	52

조세법 분야는 「세무학연구」가 134건(19.7%)으로 가장 높은 인용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세무와회계저널」 86건(12.7%), 그리고 「조세법연구」 61건(9.0%)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조세정책 분야는 「세무학연구」가 62건(14.6%)으로 인용 횟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세무와회계저널」 58건(13.7%), 「조세학술논집」 18건(4.2%)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학연구」가 323건(22.4%)으로 제일 많은 인용 횟수를 보여주며, 다음으로 「회계학연구」 313건(21.7%), 그리고 「세무와회계저널」 166건(11.5%)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재무회계 분야는 「회계학연구」가 653건(28.1%)으로 가장 높은 인용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세무와회계저널」 283건(12.2%), 그리고 「회계저널」 230건(9.9%)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관리회계 분야는 「회계학연구」가 20건(20.8%)으로 인용 횟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영학연구」 13건(13.5%), 「회계저널」 12건(12.5%)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회계감사 분야는 「회계학연구」가 361건(39.2%)으로 제일 많은 인용 횟수를 보여주며, 다음으로 「회계·세무와감사연구」 158건(17.1%), 그리고 「회계저널」 135건(14.6%)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표 20>은 「세무와회계저널」의 연구 분야별 국내논문 인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는 국내학회지 중 「세무와회계저널」에 자주 인용되는 16개 학회지를 제외한 학회지를 의미한다. 조세법 분야는 「세무학연구」가 61건(45.9%)으로 가장 높은 인용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세무와회계저널」 48건(36.1%)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조세정책 분야는 「세무와회계저널」이 36건(42.4%)으로 인용 비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세무학연구」 34건(40.0%)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인용횟수와 달리 인용비율의 경우 「세무와회계저널」과 「세무학연구」 학회지의 순위가 변동되었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학연구」가 104건(68.9%)으로 제일 높은 인용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회계학연구」 84건(55.6%)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재무회계 분야는 「회계학연구」가 173건(74.2%)으로 가장 높은 인용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14건(48.9%)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관리회계 분야는 「회계저널」이 8건(57.1%)으로 인용 비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회계학연구」와 「경영학연구」 7건(50.0%)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인용횟수와 달리 인용비율의 경우 「회계저널」과 「회계학연구」 학회지의 순위가 변동되었다. 회계감사 분야는 「회계학연구」가 57건(86.4%)으로 제일 높은 인용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회계저널」 51건(77.3%)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표 20〉 연구 분야별 국내논문 인용 비율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전체논문수	133	85	151	233	14	66
세무학연구	61 (45.9%)	34 (40.0%)	104 (68.9%)	32 (13.7%)	2 (14.3%)	6 (9.1%)
세무와회계저널	48 (36.1%)	36 (42.4%)	72 (47.7%)	114 (48.9%)	2 (14.3%)	29 (43.9%)
회계학연구	7 (5.3%)	4 (4.7%)	84 (55.6%)	173 (74.2%)	7 (50.0%)	57 (86.4%)
회계저널	14 (10.5%)	3 (3.5%)	58 (38.4%)	112 (48.1%)	8 (57.1%)	51 (77.3%)
경영학연구	1 (0.7%)	6 (7.0%)	39 (25.8%)	95 (40.8%)	7 (50.0%)	27 (40.9%)
회계세무와감사연구	3 (2.2%)	4 (4.7%)	30 (19.9%)	63 (27.0%)	2 (14.3%)	48 (72.3%)
재무와회계정보	— (0%)	3 (3.5%)	4 (2.6%)	12 (5.1%)	— (0%)	4 (6.1%)
대한경영학회지	2 (1.5%)	4 (4.7%)	21 (13.9%)	47 (20.2%)	2 (14.3%)	7 (10.6%)
경영연구	— (0%)	— (0%)	9 (6.0%)	22 (9.4%)	1 (7.1%)	3 (4.5%)
회계연구	2 (1.5%)	6 (7.0%)	8 (5.3%)	42 (18.0%)	1 (7.1%)	9 (13.6%)
회계정보연구	1 (0.7%)	3 (3.5%)	32 (21.2%)	74 (31.8%)	2 (14.35)	24 (36.4%)
조세법연구	36 (27.1%)	12 (14.1%)	15 (9.9%)	3 (1.3%)	— (0%)	— (0%)
조세학술논집	15 (11.3%)	11 (12.9%)	5 (3.3%)	2 (0.8%)	— (0%)	1 (1.5%)
조세연구	21 (15.8%)	11 (12.9%)	11 (7.3%)	— (0%)	— (0%)	— (0%)
세무회계연구	5 (3.7%)	2 (2.3%)	17 (11.2%)	13 (5.6%)	— (0%)	3 (4.5%)
증권학회지	3 (2.2%)	2 (2.3%)	13 (8.6%)	67 (28.8%)	1 (7.1%)	7 (10.6%)
기타학회지	77 (57.9%)	58 (68.2%)	79 (52.3%)	127 (54.5%)	10 (71.4%)	18 (27.3%)

3.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인용현황 및 순위

<표 21>은 KCI에서 발표한 「세무와회계저널」 학술지 인용 정보이다. 5년 기준 영향력 지수를 살펴보면, 2014년 및 2015년 1.3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2008년 0.28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표 21>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상 「세무와회계저널」 (2008년~2017년)

연도	순위	KCI-IF				Adj. IF (2년)	중심성 지수 (3년)	즉시성 지수	자기인 용비율 (2년)	논문수	피인용 회수
		2yrs	3yrs	4yrs	5yrs						
2008	8/10	0.19	0.25	0.27	0.27	0.16	—	0.11	16.6%	64	12
2009	6/10	1.02	0.86	0.8	0.78	0.85	—	0.38	16.1%	61	62
2010	6/10	1.13	0.98	0.9	0.85	1.0	—	0.12	11.5%	84	95
2011	6/10	0.92	1.14	1.08	0.98	0.76	—	0.12	17.5%	99	91
2012	8/10	0.69	0.85	0.98	0.94	0.6	1.835	0.27	13.5%	117	81
2013	8/10	1.28	1.24	1.23	1.24	0.99	2.995	0.27	22.4%	122	156
2014	5/9	1.5	1.45	1.42	1.38	1.13	3.569	0.39	24.6%	100	150
2015	5/10	1.2	1.42	1.42	1.38	0.67	3.866	0.35	43.8%	101	121
2016	3/10	1.23	1.14	1.29	1.2	0.94	2.08	0.23	23.0%	106	130
2017	7/10	0.84	0.83	0.82	0.95	0.59	1.875	0.12	29.4%	101	85

주 1) 순위 : 회계학 관련 학술지 전체 중 해당 저널의 순위
 KCI-IF :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Adj. IF : 자기인용을 제외한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중심성지수 : 주어진 학술지의 단순 피인용 횟수에만 의존하는 IF(Impact Factor)와는 달리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의 종수와 명성도에 기초하여 측정한 지수
 즉시성 지수 : 특정년도 한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 특정년도에 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자기인용비율 : 자기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횟수 / 한 학술지의 총 피인용 횟수

주 2) 자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에서 추출된 것임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기인용을 제외한 영향력 지수를 뜻하는 보정 영향력 지수(Adj. IF)는 2014년 1.13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10년 1, 2013년 0.99값을 보이고 있다. 중심성 지수는 2015년 3.86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2년 1.835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록된 논문의 당해연도 인용비율을 나타내는 즉시성 지수는 즉시성 지수는 2014년

이 0.39으로 가장 높으며 2008년이 0.11로 가장 낮다. 자기인용비율은 한 학술지의 총 피인용 횟수 중 자기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횟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0년 11.5%로 가장 낮으며 2015년 43.8%로 가장 높다.

VI.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국내 세무학 및 회계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 중 하나인 『세무와회계저널』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내용(주제)분석, 저자분석, 심사기간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용(주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논문 중 재무회계 분야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무회계 21.1% 및 조세법 18.5%의 순이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증연구(43.4%)가 가장 많이 이용한 연구방법이며, 다음으로 서술적 연구(41.2%) 및 설문(실험)연구(5.9%)의 순이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조세법 분야는 법인세법(24.1%) 및 지방세법(11.3%)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세정책 분야는 세제지원(22.4%)과 조세형평(22.4%)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세무회계 분야는 조세회피(33.8%) 및 조세순응(10.5%)이 주요 연구주제이며, 재무회계는 이익조정(21.9%) 및 가치관련성(20.2%)이 주요 주제였다. 관리회계의 주요 연구주제는 ABC(28.6%) 및 원가구조(21.4%)이며, 회계감사의 주요 연구주제는 감사품질(31.8%)과 감사보수(24.2%)이었다.

저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인 저자 비율은 29.1%, 2인 저자 비율은 48.4%, 3인 이상 저자 비율은 22.5%로 연구에 있어서 협업(co-work)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저자 직위를 살펴보면, 제1저자보다 교신저자의 전임교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사문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비 지원(52.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사의 글(21.8%) 및 학술대회발표논문(5.8%)의 순을 보였다. 저자 소속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심사기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심사기간은 평균 113일이 소요되었으며, 관리회계가 78일로 가장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회계감사 분야가 143일로 가장 긴 심사기간이 소요되었다. 심사수정 횟수를 살펴보면 즉시게재 논문(16.7%), 1차 수정 후 게재논문(67.6%), 2차 이상 수정 후 게재논문(15.7%)로 나타났다.

인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및 관리회계 분야는 국내논문 인용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재무회계와 회계감사 분야는 외국논문 인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논문 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학회지를 살펴보면,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학연구』, 재무회계 및 회계감사는 『회계학연구』, 조세정책 분야는 『세무와회계저널』 그리고 관리회계 분야는 『회계저널』의 인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무와회계저널』은 세무학 및 회계학 연구의 주요 학술지로서 역할을 20년간 충실히 이행하였다. 『세무와회계저널』이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의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세무학 및 회계학은 실용 학문으로 논문을 통해 제도(정책)를 평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타학문과의 교류를 통해서 타 학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세무학 및 회계학 연구에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선국 · 조성표. 1997. “회계학연구의 20년”. 회계학연구 제22권 제2호 : 203－220.
- 이준규 · 김갑순. 2001. “세무회계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세무학연구 제17권 제1호 : 271－304.
- 최기호. 2018.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207－275.
- 최원석 · 윤성만 · 윤소라. 2015. “한국 회계학 연구의 40년 회고와 전망”. 회계저널 제24권 제1호 : 305－350.
- 홍기용 · 박영규. 2003. “IT시대의 세무회계정보시스템의 계량서지학 분석과 평가”.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 1－16.
- Brown, L. D. and J. C. Gardner. 1985. Applying Citation Analysis to Evaluate the Research Contributions of Accounting Faculty and Doctoral Program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 262－277. (<https://www.jstor.org/stable/246790>)
- Williams, P. F. 1985. A Descriptive Analysis of Authorship in The Accounting Review. *The Accounting Review* (April) : 300－313. (<https://www.jstor.org/stable/246794>)
- <https://www.kci.go.kr/>(한국학술지인용색인)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n 'The Korea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Noh—Chang Kim* · Sung—Man Y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Journal of Tax and Accounting”(hereafter, “KJTA”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journals of domestic accounting and accounting studies. This study conducted contents (subject) analysis, author analysis, review period analysis, and citation analysis for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specifically. In the content analysis, 32.5% of the total papers were financial accounting, followed by tax accounting 21.1% and tax law 18.5%.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empirical research was the most followed by narrative research, capital market research and survey (experiment) research. As for the research topic, there are a lot of studies on the tax law in the area of corporate tax law and local tax law. In the tax policy area, there are many studies on taxation support and taxation equality.

In the authors’ analysis, co—work was common in the study, with 29.1%, 48.4% of authors, and 22.5% of authors with more than 3 authors. Looking at the authorship position, the percentage of full—time teachers of correspondent author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first author. In the analysis of the citation analysis, the ratio of taxpayers in taxation law, taxation policy, tax accounting and management accounting was the highest in Korea. In the KJTA, which is the highest rate of domestic paper citation, it is classified into “The Korean Taxation Research Review” in the fields of taxation and accounting, “Korean Accounting Review” in financial accounting and auditing, “Korean Accounting journal” was the highest citation rate.

The KJTA,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has fulfilled its role as a major academic journal for accounting and accounting studies for 20 yea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themes, various research methods and exchanges with other academic field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ole to present social change in advance.

〈Key words〉 Korean Journal of Tax and Account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search methodolog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 Taxation, Jeon—Ju University, ilulis@jj.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sm6123@seoultech.ac.kr, Corresponding Author